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기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 울 02.3705.6000	울 산 052.247.3520	천 안 041.575.0961
강 릉 033.651.1385	대 구 053.652.0070	서 천 041.951.6400	원 주 033.742.6090	청 주 043.265.3700
거 제 055.682.4950	대 전 042.254.3035	성 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 천 033.254.4878
경 주 054.772.8141	동 해 033.531.3007	세 종 044.865.2432	익 산 063.857.8910	충 주 043.848.3240
고 양 031.919.4040	<b>마</b>	속 초 033.635.3523	인 천 032.424.0524	<b>타</b>
광 명 02.895.1966	마 산 055.246.8746	수 원 031.252.5111	<b>자</b>	통 영 055.646.2547
광 양 061.762.0012	목 포 061.242.1611	순 천 061.744.7990	전 주 063.224.5501	<b>파</b>
광 주 062.609.1300	<b>바</b>	<b>아</b>	제 주 064.711.8322	파 주 031.945.5998
김 해 055.332.6000	부 산 051.441.2221	안 동 054.854.5482	제 천 043.645.2580	평 택 031.651.7701
<b>나</b>	부 천 032.668.9700	안 산 031.483.6536	진 주 055.755.3463	포 향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 양 031.455.2700	진 해 055.542.0020	<b>하</b>
남 원 063.632.7002	사 천 055.833.2344	양 산 055.367.1144	<b>차</b>	하 남 031.793.7771
논 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 수 061.654.2161	창 원 055.283.9488	

# 한국 YWCA

**이달의 생각**

고리1호기 폐쇄 성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특집**

에너지 과소비 사회를 돌아보며

**평화**

YWCA 세대 간 공감·소통 라운드테이블

**이달의 현장 ③**

청소년 금융교육 올해로 10주년 찾아가는 버스로 재미 더해



(30) **새 회가** (31)

*moderato* 중림(다소 활차게)

1 산 과 산  
2 출 기 른  
3 보 차 다

리 - 권 에 꽃 울 피 - 우 세 꽃 울 피 - 우 세  
안 - 서 리 무 직 유 - 불 세 요 리 유 - 필 세 그리스도 사랑에  
새 - 벽 중 울 러 오 리 라 울 러 오 - 리 라

편은샘에 자라 난 우 - 리 들 신 - 앙 의 은총 속 에  
바울 씨를 등 돌 을 뱉 - 양 사 회 - 매 는 동 포 들 의  
사랑하리 무 거 운 유 - 의 관 험한 린 른 울 라 가 도

서 - 로 만 - 닷 비 복 사 의 명 품 매 고 활 차 게  
결 감 이 되 - 리 라 희 생 과 자 비 로 서 불 바 쳐  
대 - 글 라 - 리 라 소 망 의 빛 을 향 고 함 - 께

몸 - 쳐 서 기다 리 는 마음 마 다 손 잡고 나 - 가 거 래 의  
나 - 가 자 어둠 속 에 걸 - 었 는 린 구 를 위 - 해 그 누가  
노 - 귀 어 밤 과 낮 을 쉬 틈 없 이 가 - 고 모 - 가 변 승 리 의

그 사랑의 탄생을 위하여 꽃피고  
비바람 불어와도 살리라 영원히 우리여가 기록 장년 회

살 리 라 영 령 회 우리 여 가 기록 장 년 회  
(매월 처음에 건구를 할 것)

리 - 권 에 꽃 울 피 - 우 세 꽃 울 피 - 우 세  
안 - 서 리 무 직 유 - 불 세 요 리 유 - 필 세 그리스도 사랑에  
새 - 벽 중 울 러 오 리 라 울 러 오 - 리 라

그 사랑의 탄생을 위하여 꽃피고  
비바람 불어와도 살리라 영원히 우리여가 기록 장년 회

살 리 라 영 령 회 우리 여 가 기록 장 년 회  
(매월 처음에 건구를 할 것)

# YWCA OF KOREA

4·19와 5·16의 큰 격동을 치루고 난 1962년은 한국YWCA가 창립 40돌을 맞는 뜻깊은 해였다. 한국YWCA연합회는 회원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용기를 북돋우는 기념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1년 전부터 '4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61년 9월 26일에 첫 모임을 가진 4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는 이듬해 4월 22일부터 28일까지를 한국Y주간으로 선포하여 회가 모집, 기념 음악회, 웅변대회, 현상논문모집과 기념 우표 발행 등의 행사와 사업들을 갖기로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

1961년 9월 2일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YWCA 새 회가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기로 하였다. 1961년 12월 2일 실행위원회에서는 회가 공모작을 심사한 결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한국YWCA를 대표하는 회가를 만들기 위해 모윤숙 씨를 작사가로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962년 1월 29일 연합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모윤숙 작사, 박태준 작곡의 새 회가가 완성되었음을 보고하고, 현재의 회가를 1962년 한국Y주간에 회원들에게 선보이게 하였다.

그러하여 현재까지도 회원들에게 널리 불리며 이어져오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회 회의록, 『한국YWCA 반백년사』

## 목 차

04	이달의 생각 고리1호기 폐쇄 성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한영수
05	월례아침기도회 손을 펴서   이세형
06	연합회 사무총장 보고 7월의 한국YWCA   유성희
<b>특집</b>	<b>에너지 과소비 사회를 돌아보며</b>
08	기획 ①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의 전력수요전망과 수요관리 계획의 문제   석광호
10	기획 ②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지역에서부터   이승수
12	기획 ③ 에너지절약 조례와 예산-내 뜻대로 내 손으로   정희정
15	탈핵 이슈와 동향 영덕 주민들의 4번째 싸움-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이한석
<b>칼럼</b>	<b>평화 YWCA 세대 간 공감·소통 라운드테이블   김광식·손자슈</b>
18	청년 데이트 폭력-사랑이란 이름의 가면   김진희
20	여성 여성노인 빈곤문제-대전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임승은
22	
24	YWCA 은학의 집 개관 15주년 기념 좌담회
27	이달의 현장 ①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토론회와 캠페인   편집실
29	이달의 현장 ② 생명꿈나무돌봄센터 현장방문(3)   이혜련
31	이달의 현장 ③ 청소년 금융교육 올해로 10주년 찾아가는 버스로 재미 더해   홍현정
34	세계YWCA 네팔 대지진을 위한 긴급구호   최지혜
36	북한어린이들기 내 아이의 생애 첫 나눔, 북한어린이와 함께!   박효정
38	연합회 소식
40	양성평등주간 회원YWCA소식
41	회원YWCA 소식



### 표지이야기

푸른 7월 9일 찾아가는 싱크머니 버스가 파주 웅담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생기 넘치는 동작에서 활기찬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 7+8월의 한국YWCA 일정

- 7월 18일 Y-틴 북부지역/중부지역 회원대회
- 7월 22일 제4차 생명비전연구소 플로키움
- 7월 23일 광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단 워크숍
- 7월 24~25일 돌봄임원 워크숍
- 7월 25일 Y-틴 서부지역 회원대회
- 7월 28일 Y-틴 동부지역 회원대회
- 8월 12일 YWCA 평화기도회와 YWCA평화운동세미나
- 8월 18일~20일 전국사무총장협의회
- 8월 26일~27일 YWCA 복지관장 연구모임

# 고리1호기 폐쇄 성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글 |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생명평화위원회 위원장)



매주 화요일 정오 즈음에 명동 한국YWCA 회관 앞에서 열리는 탈핵 불의날 캠페인이 2015년 7월 말이면 70회차에 이른다. 2014년 2월 한국YWCA 총회에서 모든 회원Y들이 '탈핵'을 중점운동으로 결정했고 곧바로 3월부터 탈핵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캠페인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원자핵을 통한 방사능 위험을 함께 알고 대처하자는 대국민운동으로 지금까지 매주 씩씩이 진행되어 왔다.


거리 캠페인에 익숙지 않았던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으면서 순간순간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큰 운동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동안 회원Y들이 연합회가 있는 서울 명동으로 와서 함께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나아가 각 지역에서 지역 사정에 맞는 탈핵 캠페인을 펼치며 전국으로 탈핵의 물결이 퍼져 나가 명실공히 한국YWCA의 탈핵운동이 중점운동이 되었다.

고리 1호기 폐쇄가 지난 6월 16일에 결정되었다. 그 당시 한국Y는 광화문에서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40일 금식 기도의 마지막 주관을 주관하고 있을 때였다. 지난 2월, 정성을 다해 모았던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10만 서명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재연장을 막아야 한다는 강력한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염원하던 소식을 접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정말 미약했지만 명동에서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시작하던 때가 떠오르며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는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지난 2월 27일에 연장이 결정되었다. 월성 1호기는 중수로형 핵발전기로 핵분열을 조절하는 감속제로 중수를 사용하므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30배나 더 배출하여 경수로형 핵발전기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하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암이나 기형 출산 등을 유발시키고 다른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 돌연변이의 위험을 초래한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기가 부족하지도 않건만 전력 수요와 예비율을 터무니없이 높게 잡고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청정해역 영덕에 지으려 하고 있다. 이에 영덕 주민들은 스스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주민 투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차대한 일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이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다. 신규핵발전소에서 전기의 사용처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 송전탑을 세워야 한다면 그로 인해 희생되어야 하는 또 다른 밀양이나 청도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도 각성하여 우선 에너지를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70%로 정한 경기도같이 장기 에너지 사용 계획을 세워 핵발전소를 모두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를 상용화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 손을 펴서

글 | 이세형 목사 (협성대학교 신학과 교수)

##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라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느 하루를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웅크리고 있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런데 회당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인가 고발할 것을 찾고 있는 종교지도자들이 있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은 오히려 고난과 박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목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길을 적극적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회당의 종교 지도자들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 대해 관심하거나 주목하지 않았다. 이들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았다. 이들의 관심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이었다.

자기 권력을 지키는 일이 우선인 지도자들이 있는 회당 안으로 예수님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안식일 법에 개의치 않았고, 진실을 말하고 고통당하는 이를 치유하셨다. 예수님은 먼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아파해 주셨다.

우리는 손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간다. 이 손으로 생명을 가꾸고, 이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 이 손으로 외롭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격려하며 눈물을 닦아준다. 우리의 손은 살아있음의 표현이고 삶의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의 손이 오그라들었다고 상상해보자. 오그라든 손은 우리의 삶을 오그라들게 한다.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하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한다. 회당에 와셔도 주님의 옆이 아니고 저기 구석에 남의 눈을 피해 있을 수밖에 없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저기 불행을 만난 누군가가 아니라 좁은 가슴으로 이웃을 품을 수 없는 손을 움켜진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또한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로 마음을 닫고 좌절 가운데 소명을 묻어두고 최소한으로 사랑하고 안전하게 자기를 방어하며 살기 시작한 절름발이 된 우리이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에 외상을 갖고 불구가 된 채 오그라든 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다.

여러분의 손은 축복을 비는 손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병든 자에게 축복을 비는 손이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위로가 넘침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이 손을 들 때 여러분을 심판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때마다 마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긴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칠 것이다. 

# 7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7월입니다.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열리던 여성주간이 올해에는 ‘양성평등주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여전히 여성문제가 심각하고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나, 여성만이 아니라 양성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여성운동의 목표이므로 양성평등주간을 선포한 2015년 7월은 여성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7월 6일에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양성평등을 위해 수고한 회원YWCA 활동가들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YWCA가 여성의 직업개발을 통해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게 되어 더 기쁘고 의미가 있는 양성평등주간이 되었습니다.

산업현장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직종을 전문화하는 국가 정책이 국가직무표준능력(NCS) 제도입니다. 직업교육이 전문화되고 일-교육-훈련-자격이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NCS 제도는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고려하여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이 NCS에 포함되도록 한국YWCA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성별영향분석의 과제로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6월에 가사지원과 출산보육분야에 대한 NCS 개발계획이 신규 수립되었고, YWCA는 가사지원 분야의 개발기관으로 선정되어 NCS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사지원 분야의

NCS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첫 작업이라 어려움이 많지만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최선을 다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YWCA와 YMCA, 경실련 등 3개 단체가 연대한 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한 사회적기업 국제심포지엄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대구Y와 서귀포Y가 지역 사무국을 맡고 있고 연합회가 전국 사무국을 맡아 지역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와 공공의 이익이 재투자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월 18일 북부/경기지역과 중부지역을 시작으로 Y-틴 지역별 회원대회가 4개 지역단위로 열렸습니다. 앞서 예정되었던 전국단위캠프는 메르스로 연기되어 아쉽습니다만, 지역별 회원대회를 통해 청소년의 힘찬 기운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메르스로 몸과 마음이 모두 경직되었던 6월이 지나고 무더운 한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메르스 사태로 지역의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변화가 많았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탈핵 캠페인에도 다시 회원YWCA의 참여가 시작되고, 정전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와 세미나, 시민참여의 지역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2015년 여름,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나라 운동을 위해 한국YWCA는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의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에너지 과소비 사회를 돌아보며

- 기획①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의 전력수요전망과 수요관리 계획의 문제 | 석광훈
- 기획②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지역에서부터 | 이승수
- 기획③ 에너지절약 조례와 예산-내 뜻대로 내 손으로 | 정희정

#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의 전력수요전망과 수요관리 계획의 문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전력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미리 예상한 뒤에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요 관리 효과를 높이는 전력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글 |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 전기 다소비업종의 구조변화를 무시한 수요 전망

지난 2000년대 초반 10%에 육박하던 국내 전력소비 증가율은 최근 수년간 4.8%(2011), 2.5%(2012), 1.8%(2013), 0.6%(2014) 순으로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보여주었다. 제7차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의 수요 전망은 이 같은 둔화 추세를 최근 동·하계 온화한 기후, 정부의 강력한 수요관리에 의한 일시적 변화로 간주하고, 2015~2020년 기간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연평균 3.6%의 높은 전력수요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2020년대 후반에 이르면 GDP증가율 대비 전력수요증가율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6차계획 대비 신규원전 2기(약 3GW)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수요추세는 정부의 희망처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베이징올림

픽까지만 하더라도 올림픽 특수로 한국 제조업의 주요 수출시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그간 생산설비를 확대해 온 결과, 거꾸로 그 잉여물량을 저가에 세계로 수출하면서 국내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등 전력다소비산업의 경우 한중일 3국의 설비과잉이 2020년대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해 건설업 경기실적이 0.5%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등 국내 제조업의 전통적인 수요 역시 둔화추세에 있다. 건설업종은 철강, 시멘트 등과 같은 후방산업에 선행하는 중요한 경기지표로서, 실제로 이들 후방산업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유례없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 전력수요의 5~6%를 차지하는 전기로제강이나 시멘트는 전적으로 건설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물론 국내 제조업의 마이너스 실적은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할 전력수요전망에 정부의 희망사항을 집어 넣을 일은 아니지 않은가?

	1월	2월	3월	4월	1~4월합계
일반 제철	4,120	3,651	3,957	3,847	15,575
(전년대비 %)	4.6%	2.9%	-2.7%	-0.2%	1.1%
전기로 제강	1,811	1,397	1,951	1,896	7,055
(전년대비 %)	-15.7%	-21.7%	-16.6%	-19.1%	-18.1%
철강 합계	5,931	5,049	5,908	5,743	22,631
(전년대비 %)	-2.6%	-5.3%	-7.8%	-7.3%	-5.8%

〈표 1〉 2015년 국내 철강(일반제철, 전기로) 조강생산실적 (출처: 한국철강협회)

## 본말이 전도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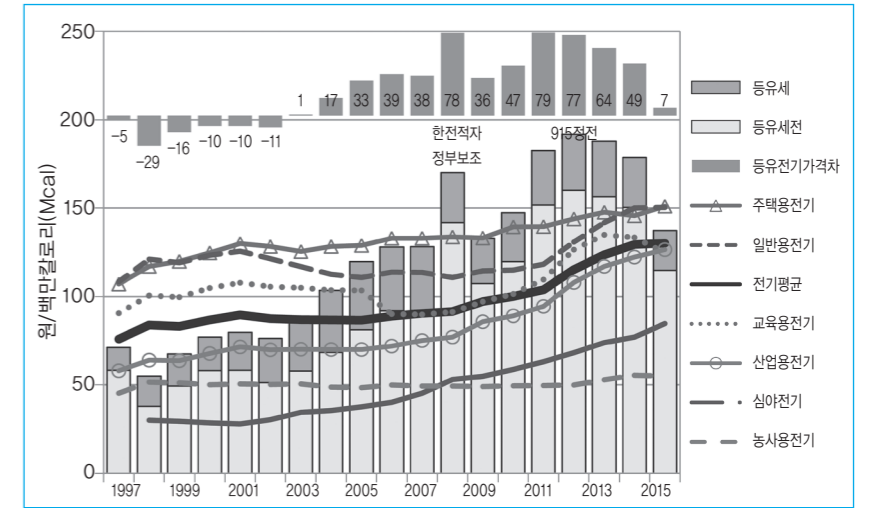
### 동계 및 하계 피크전망

이번 전력수요전망의 또 다른 문제는 발전소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최대 전력(peak load) 전망의 급선회에 있다. 지난 5차 계획 및 6차 계획까지는 모두 하계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해왔다. 그러나 이번 7차 계획은 과거계획대비 GDP 성

장률 전망치가 내려감에 따라 하계피크를 이전 계획들보다 큰 폭으로 하락시킨 반면, 동계피크를 과거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계획기간(2016~2029년) 내내 하계피크를 추월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이한 전망안에 대해 사실 당시 참여한 전문가들 상당수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망치를 제시한 담당자는 “동계 전력수요의 기온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온민감도가 높아졌다”라는 논리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으며,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즉 2000년대 말부터 증가한 동계피크는 ‘기온민감도’가 아닌 유류·전력간 상대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수요반응이었을 뿐이다. 만약 정부의 가격 개입으로 인해 생수의 리터당 가격이 수돗물보다 저렴해지게 된다면, 생수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하다못해 생수로 세탁기를 돌리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시민들이 청정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생수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고 진단하는 꼴이다.

실제로 정부의 모순된 에너지가격개입으로 인해 국내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인 반면, 유류에는 중과세를 하면서 유류가격은 EU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는



〈그림 1〉 국내 유류 및 종별 전기요금 변화추세

상황이 벌어져왔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열량기준으로 전기가 유류보다 더 저렴해지면서 수송부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유류를 사용하던 저급에너지수요가 전력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전환수요’가 급격히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에너지상대가격을 방치한 결과 지난 2008년 한전은 막대한 판매손실과 적자로 인해 사상 최초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고, 급기야 2011년에는 ‘순환단절’ 사태까지 경험했다. 그리고도 강조된 정책은 발전소가 부족하니 발전설비계획을 더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꼴이다.

물론 지난 3년간 전기요금의 부분적인 인상과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유류·전력간 가격역전현상은 잠시 완화된 상태지만, 상대가격 정상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에너지 세제조정이 필요하다(그림1 참조). 에너지가격이 이처럼 방치된 채, 7차계획에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전력수요관리사업들이 제대로 작동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신규원전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전력수요전망과 역전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지역에서부터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론이 있다. 중앙집중형 정책이 담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탈핵 운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것이다.

글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경북 영덕에 신규 원전 2개를 건설하고, 추가로 2개를 영덕이나 강원도 삼척에 건설하겠다고 한다. 물론 경상북도나 강원도에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은 아니다. 동해안에 짓는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76만 5천볼트 송전선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그래서 길이 200킬로미터가 넘는 초고압 송전선이 최소 2가닥이상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30년까지 경기도의 전력자립도를 현재의 29.6%에서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원전 7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미 서울시는 몇 년 전부터 ‘원전1개 줄이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전력자립도를 4%대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원전을 늘리겠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을 줄일 수 있도록 전력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과연 어느 방향이 올바른 것일까?

## 지자체에서 전기소비를 줄이도록

세계적인 추세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택하고 있는 방

향으로 가고 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대규모 발전소들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하는 지역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는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발전소를 짓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전기소비는 가정에서도 줄여야 하고, 공장이나 상업용 건물, 공공건물 등에서도 모두 줄여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핵심이 산업용 전기 소비이다. 대한민국 전체 전기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원가 이하로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정책을 펴서, 전기소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 왔다. 이제는 이것을 정상화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최소 50%이상 올려도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꺼번에 올리기 어려우면 미리 예고를 하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력자립도를 올리려고 하지만, 중앙정부가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

역 내 기업들과 협약을 맺는 형식으로 전기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도 시도를 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의 전기소비 실태를 진단하고, 전기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 지역의 전력자립도를 높이는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둘째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당분간은 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천연가스도 화석연료이기는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절반 이하로 적다. 그리고 각종 대기오염 물질도 적게 나온다. 석탄화력발전은 바닷가에 짓지만, 천연가스 발전소는 내륙에도 지을 수 있어서 지역분산형 발전에도 적합하다. 이런 이점 때문에 유럽에서도 석탄화력 발전은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

물론 천연가스도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활용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는 매우 다양하다. 태양광 발전은 기본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건물옥상이나 벽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걸 수 있는 미니태양광발전기(250W) 설치가 늘고 있다. 서울시의 발전방식 중에서는 흥미로운 것들도 많다. 서울시는 2014년 팔당호에서 끌어오는 상수도관의 낙차를 이용해 소수력 발전을 시작했다. ‘암사아리수 정수센터’에서 노량진배수지로 상수도가 흘러갈 때의 낙차(24미터)를 이용한 발전방식이다. 이 발전소에서 466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버리는 물인 하수를 이용해서도 소수력 발전을 시작한다고 한다. 2미터 미만의 저낙차에서 유속과 유량을 이용해 수차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저낙차 흐름식 발전기’ 방식이다. 4곳의 물재생센터에서 53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고 한다.

하수 슬러지나 쓰레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도 전기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 전기생산과 함께 남은 열은 난방용으로 공급한다. 열병합 발전을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남 물재생센터’의 하수슬러지를 활용해서 열병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메탄가스를 모아서 열병합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올바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앞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방식들을 택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들이 무궁무진하다.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에는 수천 개가 넘는 저수지들이 있다. 이 저수지들을 잘 활용하면 소수력 발전을 할 수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큰 공장들은 자체 발전을 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기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체 발전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일본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비해 자체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비율이 4배나 높다. 이처럼 지역분산형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초고압 송전선도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자기 지역에서 해결하면 장거리 송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차원에서의 전력자립 노력은 전국 어디서나 필요하다. 부산이나 인천, 충남은 지금은 전력자립도가 높다.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한다. 지역 내에 원전이나 석탄 화력발전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발전소들도 수명이 끝나면 문을 닫아야 한다. 결국 부산이든 인천이든 전기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미래를 대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들이 활발해지기를 기원한다. 

# 에너지절약 조례와 예산 내 뜻대로 내 손으로

에너지 과소비 사회에서 시민들이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자체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든 지자체의 조례와 예산에 대해 소개한다.

글 | 정희정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했다. 여름은 에너지절약에 대해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었으나 올여름은 힘이 빠진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조치 때문이다. 무더위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해 전력난이 심각해지고 정전의 위기도 있으니 함께 아끼자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의 메시지도 공허해져 버렸다.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고 전기를 아껴 쓰게 만드는 유인을 약화시킨 조치에 대한 의혹을 갖는 이들이 많다.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중앙정부와 달리,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혁신적인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을 통해 공동체를 되살리는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 조례들

최근 서울시 성동구는 에너지 절약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축 조례를 제정했다. 요즘 건물들은 계단을 찾기도 힘들고 이용하기 불편하게 돼 있어서 한 층을 오르내리는데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성동구의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을 전면에 배치해

계단 사용 빈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성동구에 지어지는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5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은 내·외부에 걷기 좋은 보행경로와 환경을 만드는 등 37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신체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물을 짓게 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 덕분에 에너지 절약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일찌감치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2010년)을 마련하고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2013년)도 제정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에 비해 에너지를 덜 쓰는 공동주택들이 11개 단지 3만3000여 세대가 지어져 연간 46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절감되고 잣나무 30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조례에 따라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을 받은 고덕주공2단지의 경우, 세대당 난방비가 연간 240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에너지 낭비는 건물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일회용품들도 에너지 낭비의 주범이다. 2014년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학교를 포함한 시 공유지와 건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에 넣은 생수 판매

가 법으로 금지됐다. 500ml 생수 한 병을 만들어 운반하고 마신 뒤 재활용하는 데 드는 기름이 125ml라고 한다. 미국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사용되는 기름이 연간 1700만 배럴인데, 이는 자동차 130만 대가 1년간 사용하는 기름과 맞먹는 양이다. 수돗물을 마시는 것보다 200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페트병 생수를 판매 금지하는 법은 샌프란시스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페트병 생수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에서 페트병 생수 제공을 금지하고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조례와 예산,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실천이 확산되고 건강도 지켜주는 착한 건축물들이 더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관련 법제도가 마련된다면 가능한 일이다. 법체계 중 비교적 하위 개념에 속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동네의 법이니 조례만큼 중요한 법체계도 없다. 에너지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에너지 낭비를 막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누구나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제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만, 시·도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의 최소 100분의 1, 시·군·구의 경우 최소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조례 제·개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의 서명을 받기 힘들다면 내 손으로 뽑은 지방자치 의원들의 힘을 빌리면 된다.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이다.

조례 제정뿐 아니라 예산도 주민참여로 결정할 수 있다. 서울시 성북구의회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전기 판매 수익금으로 지역의 저소득층을 돕는 착한 발전소다. 60kW급 발전소는 매년 3000만 원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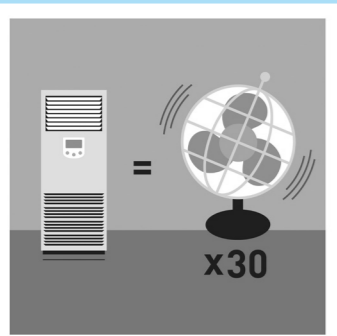
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2억3000만 원은 모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비로 확보했다. 금천구의 동주민센터와 청소년독서실 옥상에도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되었는데, 이 역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 설치한 것이다.

구로구에서는 올해 미니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10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태양광발전기 설치 지원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설치비의 절반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서울시민들은 최소 29만원을 투자하면 우리집을 햇빛발전소로 만들 수 있는데, 구로구민은 19만원만 내면 된다. 같은 아파트에서 20가구 이상 공동설치할 경우, 서울시에서 10만원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구로구민이라면 9만원이면 된다.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들이 평가해서 예산 사용처와 규모를 정하는 주민참여예산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방법은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면 관리비가 인상된다며 경비원을 집단해고하는 아파트들이 많았고, 자살 사건도 벌어지는 등 갈등이 심각했다. 반면, 에너지절약을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경비원들의 임금인상과 고용을 보장해준 성북구 석관두산아파트의 사례는 훈훈한 감동을 줬다. 성북구에서는 올해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고 아파트들은 경비원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제2, 제3의 석관두산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함께 행복한 '동행(同幸) 아파트' 사업의 일환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아파트 조명 LED 교체사업을 구에 제안한 적극적인 노력,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지자체가 만들어낸 모범적인 사례다.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런 사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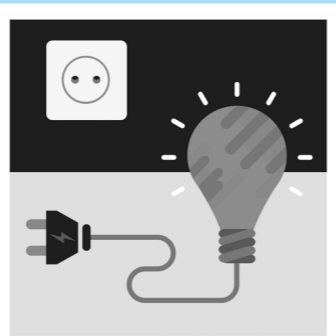
## 서울시 에너지절약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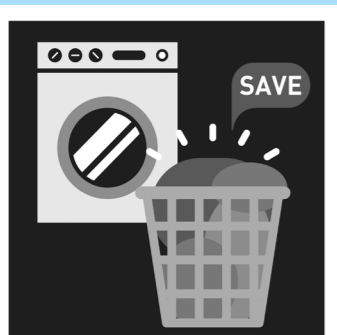
에어컨 1대를 끄면  
30대의 선풍기를 켤 수 있습니다.



전기밥솥은 에어컨과 소모되는 전력이 같은데  
에어컨은 여름에만 사용하지만  
전기밥솥은 보온 모드로 1년 내내 사용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를 뽑으면  
암흑속에서 살아가는 전 세계 17억 명에게  
빛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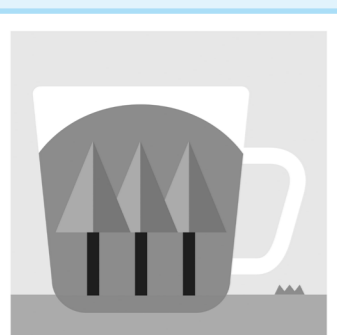
세탁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전기와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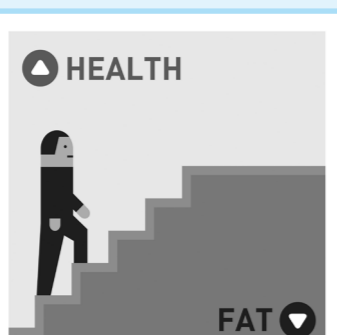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은  
물이 부족한 나라의 아이가  
3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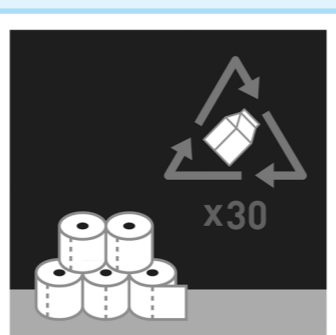
냉온수기의 냉수와 온수 기능을 꺼 두면  
대형냉장고가 소비하는 전력만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면  
나무도 보호하고  
소중한 숲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비만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0개의 우유팩을 모으면  
5개의 두루마리 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http://energy.seoul.go.kr/seoul>)

## 탈핵 이슈와 동향

# 영덕 주민들의 4번째 싸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최신 탈핵 이슈와 동향을 소개하는 코너로 한국YWCA의 2014-2015 중점운동인 탈핵운동의 목적과 방향을 회원YWCA와 공유한다.

글 |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영덕, 우리나라 최초로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벌어지다

흔히 우리나라 반핵운동의 역사는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역사로 요약된다. 환경운동은 물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군사독재정권 시절, 핵발전소는 건설되었다. 지역주민들에게 핵발전소는 너무나 생소했고, 기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핵발전소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자리잡은 핵발전소를 몰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핵폐기장은 달랐다. 아직 시설이 건설되지도 않았고, 정부의 계획도 민주화 운동이 진행된 이후인 1980년대 후반에야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한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전국적으로 핵발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1989년 영덕에서 이뤄졌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한 정부는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밀리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영덕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다. 이 사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해 알려지면서 영덕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핵폐기장 부지로 지목된 영덕군 남정면 주민 2천여 명은 지역 간선도로인 7번 국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고, 플래카드와 2만여 장에 이르는 유인물 배포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뜻을 알렸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놀란 정부가 부지 조사를 중단하면서 핵폐기장 부지 선정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일방적인 정부 정책을 주민의 힘으로 막아낸 것이다. 하지만 영덕 주민들의 수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2003년과 2005년 영덕은 또다시 핵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그 때마다

지역주민들은 격렬히 저항했고, 영덕을 지킬 수 있었다. 세간에는 1990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2003년 부안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영덕처럼 줄기차게 후보지로 지정되었다가 백지화된 사례는 없다. 영덕은 모두 9차례나 진행된 정부의 핵폐기장 선정 계획 중 3차례나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인구가 적고 외진 곳에 있으며, 핵폐기물을 수송하기에 편한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덕 주민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생업을 뒤로한 반대운동에 나선 것이다.

####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저항하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은 이제 4번째 싸움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한 주민운동이었지만, 지금은 핵발전소 건설이 쟁점이다. 2010년 영덕군과 삼척시는 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했다. 형식상은 지자체가 핵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핵산업계에서 다양한 유치 독려 작업 끝에 나온 결정이었다. 거기에는 근거를 알 수 없는 많은 지원금 약속과 개발 공약이 뒤섞여 있었고, 결국 전체 영덕군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사만 반영된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다수의 영덕군민은 신청서 접수는 사실이나, 그것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냥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것 정도로 이해한 주민들도 많았다. 그러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은 생각이 바뀐다.

대게와 송이버섯, 복숭아 등 농수산물이 유명한 청정 영덕과 핵발전소는 원래부터 맞지 않는 조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삼척에서 진행된 주민투표도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삼척은 핵발전소 유치 신청 당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신청되었으나, 당시 삼척시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


다. 이후 반대운동이 격렬해지면서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시장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작년 10월, 주민투표를 통해 삼척시민 85%가 핵발전소 유치 철회를 지지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영덕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는 수단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삼척의 영향으로 작년 겨울부터 영덕에서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6월 주민투표 추진 위원회가 발족하고, 지난 7월 초엔 영덕군수에게 주민투표 청구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이미 영덕군의회가 진행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58%가 핵발전소에 반대하고 66%가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인되었기에 영덕에서 추진 중인 주민투표는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민심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다.

#### 이제 그냥 영덕 주민들을 내버려두라!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핵발전소 부지 선정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며, 이미 후보지로 지정되었기에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많은 이들이 핵발전소 추가 건설의 위험성 이외에도 이제 전력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핵발전소 건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계속 이어진 영덕 주민들의 지난한 싸움은 이제 끝나야 한다.

단지 인구밀집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의 입장처럼 전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수천년동안 깨끗함을 이어온 영덕이 아니라, 전기가 필요한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간 고통을 반복해 온 영덕 주민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 평화 YWCA 세대 간 공감·소통 라운드테이블

| 김광식·손지수

• 청년 데이트 폭력-사랑이란 이름의 가면 | 김진희

• 여성 여성노인 빈곤문제-대전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임송은

# 일상 속의 평화도 중요하다

YWCA 세대 간 공감·소통 라운드테이블은 대구, 안양, 여수, 인천, 전주, 청주의 대학·청년Y 회원들로 구성된 '청년평화포럼 기획 TF'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TFT가 '우리에게 평화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토론했을 때, 한반도 평화, 동북아와 세계 평화 같은 거시적인 담론도 거론되었지만, 지금, 여기, 나의 삶 속에서의 평화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청년들의 일상적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을까? TFT는 이성교제, 결정장애, 시간

관리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본인들의 고민을 지역별로 청년들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윗세대와 함께 모여 이야기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회원Y 공동체 내의 세대 간 화합도 꾀해 보기로 했다. JTBC에서 방영 중인 '비정상회담'의 형식을 빌려, 질문을 던지고 그에 관해 '비정상이다', '아니다'를 놓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북·중부와 동부 지역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고 참여했던 청년들의 라운드테이블 후기를 정리하여 싣는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데 30분 이상 걸린 적이 있으며, 타인이 결정한 메뉴를 그냥 먹을 때가 많은 나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글 | 손지수 (대구Y 대학Y 회원, 청년평화포럼 기획 TF 팀원)

5월 30일 마산YWCA에서는 마산Y와 대구Y의 청년들과 자원지도자 다섯 분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지역 YWCA 세대 간 공감·소통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다. 더 다양한 회원Y에서 참석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시작하였다. 동부지역은 현재 대부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햄릿 증후군' 즉, '결정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과연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정장애'란 무엇일까?

위의 질문에 대해 정상 측 의견으로는 '시간낭비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타인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가 나왔고, 비정상 측 의견으로는 '30분 이상이나 걸린다는 것은 비정상이다', '삶에서 선택하는 것이 무궁무진한데, 모든 것을 자신이 아닌 타인의 생각에 따라 결정을 한다면 비정상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렇다면 "결정장애가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 사회에는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SNS를 통해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들을 접할

수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많은 양의 정보들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거나 상실하게 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또 '부모님이 결정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성공한다.' 라는 기성세대의 교육방식 때문에, 청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결정하는 법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였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부모님, 친한 친구, 이성교제 상대방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솔직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고, 그에 대해 자원지도자분들께서 조언과 충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놓은 이야기에 대해 참석자들이 서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며, 청년들의 고민이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두의 고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대학 청년Y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깨닫고, 같은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다.

**“이성교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대학생, 비정상인가요?”**

글 | 김광식 (청주Y 대학Y 회원, 청년평화포럼 기획 TF 팀원)

“요즘 애들은 대체 왜들 이러는지, 우리 땀 안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죽어라 하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아. 우리에게 평화란 존재할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며 치열하게 살아 오신 우리네 어른세대들은 넘치는 문명의 발전과 편리함 속에 오히려 설자리를 잃어가는



지금의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청년들의 잃어버린 평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북·중부지역 YWCA 세대 간 공감·소통 라운드테이블'이 서울, 안산, 안양, 청주Y 청년회원과 자원지도자, 실무자 및 연합회 실행위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30일 안양YWCA에서 진행되었다. 장기자랑이 아닌 '자기자랑'이 포함된 자기소개로 분위기를 환기하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성교제에 전혀 관심 없는 대학생, 정상이다?”**

먼저,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 나아가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오포·칠포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성교제에 관심 없는 대학생은 연애라는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생각하지 못하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무한 경쟁사회에서 스펙과 취업 준비를 위해 연애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였다.

**“취업, 학업문제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현재 대학생활과 취업준비 속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며 경험담을 나누었다. 토론 과정에서는 청년 개인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삶을 제대

로 살아내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인간임을 쓰는 청년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청년들의 빈곤과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YWCA의 윗세대와 청년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모았다.

**“경제적 여건은 연애와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당장의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청년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건을 중요한 삶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청년들의 고민에, 여러 자원지도자분들은 모든 경제적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경험과 격려를 주시기도 하였다. 또, 젊은 여성들이 남성의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비판하기 전에, 남녀의 임금차별이나 여성의 무임금 노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번 북·중부 라운드테이블은 간단해 보이는 이성교제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내고, 윗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길 원하며 진정으로 고민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격려하는 어른들이 함께한다면 삼포·오포·칠포세대 속에서도 청년들이 삶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데이트 폭력 사랑이란 이름의 가면

최근 20~30대 청년들에게서 가장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데이트 폭력. 청년 인터넷 방송국 YWBS 9기 아나운서로서 지난 6개월간 매주 금요일마다 여성폭력을 이슈로 다루며 방송을 진행해 온 필자의 글을 만나본다.



글 | 김진희  
(청년 인터넷 방송국 YWBS 9기 아나운서)

##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자 하는 그 남자

평화로운 주말 오후, 나는 동생으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왔다.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남자친구의 제대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는 줄로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의 면회를 갈 때마다 남자친구가 그녀의 휴대전화 통화목록과 문자, 카카오톡의 대화 목록을 다 보고, 심지어 대화 상대와의 관계는 어떤지를 캐묻는다고 했다. 그 동생이 남자친구의 그런 행동과 감시받고 있다는 것이 싫어서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발이나 주먹으로 벽을 친다고 했다. 게다가 학교 엠티도 못 가게 하고 친구들과 과 노는 것조차 남자친구가 극도로 싫어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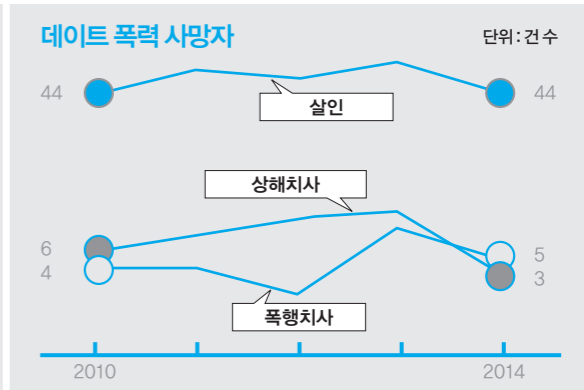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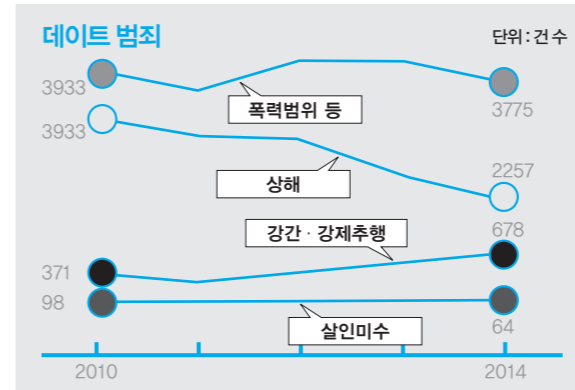
솔직히 내가 그 동생이었다면 일찍이 나는 그런 남자친구와는 만남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친구는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물으니 “헤어지자고 하니깐, 화장실에 목을 매서 죽어버리겠대요..... 어떻게 헤어져요. 그리고 제가 오빠가

보기에 나쁜 행동을 하니깐 오빠가 이렇게 화내는 걸 꺼예요.”라는 것이다. 나는 이 동생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치고 진짜 죽는 사람은 없다고 말은 했지만 이 동생은 만약의 상황도 걱정되고, 다 자기가 잘못 처신해서 오빠가 이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내가 말한 이야기는 데이트 폭력의 한 사례이다.

## 해마다 증가하는 데이트 폭력 범죄

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신체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상대에게 정서적, 언어적, 성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도 모두 폭력의 요소이다.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에 따르면, “일반 폭력은 한번으로 끝나지만, 데이트폭력은 일상적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게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상대방이 날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잘못된 모성애가 발동해 가해자를 감싸주고 동정하며, “나만이 이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라는 착각을 한다. 이게 다 데이트 폭력인데 말이다.



〈표1〉 데이트범죄 및 데이트 폭력 사망자 통계 (출처: 중앙일보 2015년 6월 25일)

한 조사에 따르면 20~30대 2명 중 1명은 데이트 폭력의 경험이 있고,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현실을 본다면 큰 문제다. 더욱 황당한 것은 피해자 중 40%는 데이트 폭력을 겪은 뒤에도 연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범죄, 이별과정이나 이별 후 발생하는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이는 2011년 6775명, 2012년 7076명, 2013년 6598명이었다. 또 애인으로부터 살해된 피해자는 2011년 47명, 2012년 47명, 2013년 49명으로 나타났다. 아마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연인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모든 사건이 신고나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연애하는 법보다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때

작년부터 ‘마녀사냥’(JTBC)이라는 연애 상담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연애 특강이 하나의 대중적인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더불어 연애를 가르치는 학원도 생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연애에 대한 관심은 정말 커졌다. 하지만 연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거나 또는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특강은 전혀 없다. 그래서 연애하는 방법보다도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학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학에

서도 오히려 관련 강의를 축소하거나 강의가 있다고 해도 이벤트성의 형식적인 수준의 강의로 그쳐버리고 만다.

또한 데이트 폭력을 지극히 사적인 일로 치부하거나 다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고,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아 오히려 대중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부분처럼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앞서 말했다시피 데이트폭력 피해자들 또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화영 소장의 연구논문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을 겪은 여성 대부분이 연애 초반부터 폭력을 경험하지만 이를 사랑으로 착각한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별 일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겨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사랑이란 가면을 쓴 데이트 폭력을 피해자는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된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바꿀 수 있겠지’라는 식의 태도는 그저 상상 속 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런 희생적, 체념적 태도는 버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나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연인에 대한 소유욕이나 집착을 당연시 여기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 통계로 보는 여성 노인의 생활실태

대전YWCA에서는 지난 7월 2일(목) 2015년 대전광역시 여성발전복지기금사업으로 제20회 대전여성포럼을 진행하였다. 포럼 발제 자료를 통해 그간 여성 주요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던 여성노인의 빈곤문제와 실태자료를 확인한다.

글 | **임승은**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번 진행된 여성포럼의 목적은 대전지역 여성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빈곤의 원인을 찾아 대전시의 정책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포럼을 위해 대전지역 중, 장년 및 여성노인 238명을 대상으로 5월 중순부터 약 1개월간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여성들의 경제생활 참여 여부와 내용 그리고 노후 준비와 근로희망 여부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질문들이었다.

238명의 응답자 중 129명(54.2%)이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109명(45.8%)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49.7%, 2013년)과 비슷한 수치이다. 현

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 여성의 41.1%가 서비스직 종사자이고 17.8%가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여성은 14.7%에 불과하였다. 이들의 고용형태는 상용직, 임시직과 일용직 순이었으나 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이 24%로 가장 많았고, 1~3년, 5~7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안정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였으며(45.7%), '사회참여 및 관계형성'은 17.1%, '일을 통한 즐거움 때문'은 13.9%에 그쳤다. 생계비 마련은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며, 응답자의

88%가 본인의 생활수준이 낮거나 그저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 109명 중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와 '건강이 안 좋아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집안일 때문'이었고 '능력이나 기술이 없어서'가 그 뒤를 이었다. 가부장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 대부분은 일생 동안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양육과 가사를 전담해왔고, 남성 중심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왔다. 또한 연령의 증가는 낙후된 기술과 능력으로 인해 '덜 능력 있고 덜 생산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응답자의 31.6%만이 '노후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70% 정도는 노후대책을 하지 못한 채 노년을 보내야 한다. 이들 중 대부분(87.2%)은 향후 구직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경로로는 고용센터 이용이 절반 정도였고 나머지는 개인적 인맥이나 동사무소, 구청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로는 응답자 60% 정도가 '70세 이하'라고 하였으며 '건강이 유지할 때까지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20%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여성은 나이와 크게 상관없이 건강이 유지되는 한 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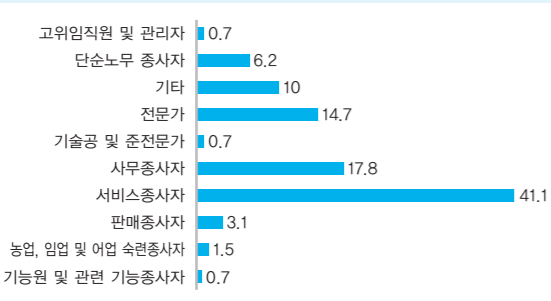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근로소득이 가장 높았으며(61.8%) 공적 이전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1.8%, 6.1%로 나타났다. 가구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내용은 주거 관련비와 보건 의료비였고, 노후에 걱정되는 부분 역시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가 주를 이루었

다. 이러한 노후생활의 어려움이 예측되는 가운데에도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는데(86%), 그 이유로는 '개인적이고 독립된 생활을 원해서'이며 또는 '손, 자녀 양육의 부담을 원치 않아서'라는 응답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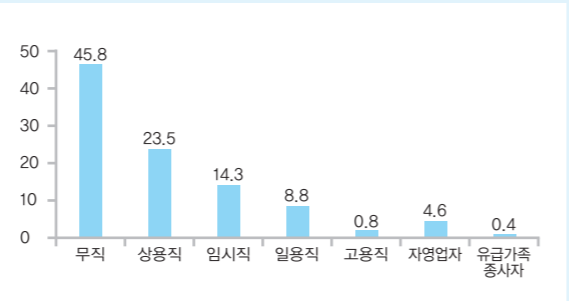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응답자 대부분이 원하는 일자리 개선의 내용으로는 급여수준 상승과 근로시간 일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탄력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많은 의견으로는 '여성 노인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전업주부로 일생을 살아온 여성노인들에게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주기를 희망하였고,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의 여성노인과 남편 사망 후 홀로 된 여성노인은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복지 혜택이 있기를 원했다. 특히 자녀 양육 후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전문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여성노인의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노년기 이전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연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와 내용에서 성차별을 없애고 성역할 분업적인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적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가운데 여성의 평균수명이 약 85세로 남성보다 7~8년 더 오래 살고, 배우자 없이 미망인으로 약 10년 정도를 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노인으로서의 여성'비율이 높고 빈곤과 건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여성노인들이 하루 속히 행복해지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그림1) 여성노인 직업현황



(그림2) 여성노인 고용형태현황

#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함께 꿈꾸는 곳 '은학의 집'

2000년 5월 개관한 YWCA 은학의 집이 어느덧 개관 15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7월 16일(목) 오후 2시 YWCA복지사업단 이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많은 이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개관을 준비했던 처음 이야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은학의 집'을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정리: 편집실)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김재화 전 복지사업단 이사장, 강교자 복지사업단 이사장, 차경애 연합회 회장, 김은경 복지사업단 이사

## 1980년대에 노인복지에 관심 갖기 시작해

**강교자:** 바쁘신 중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은학의 집과 함께 한 지난 15년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뿌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보는 자리입니다. 먼저 은학의 집의 시작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까요?

**차경애:** 노인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왔는데 Y에서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때는 1982년 창립 60주년 기념 전국대회에서 김재화 선생님이 노인복지에 관한 발제를 하시면서부터로 기억합니다.

**김재화:** 네, 그 전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야겠네요. 80년대 초에 UN 회의에 NGO 대표로 참여했을 때 당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온 사람들은 '한국에는 노인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지요. 아마 다른 나라 사람

들은 동양의 충효 사상을 기반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외국의 시민단체들이 노인들의 일상을 위한 시설 개선과 노인용품 보급 등 많은 의제를 갖고 나온 것에 놀랐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문에 기고를 하는 등 노인 문제를 알리기 위해 애썼죠. 박에스터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Y에서 필요한 의제로 받아들여져 전국대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실버타운처럼 Y의 은퇴한 어른들이 함께 모여 사는 양로시설을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 시설을 지으려고 하니 '나는 며느리하고 살테야, 나는 아들하고 사는데'하면서 찬성표가 별로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교자:** 건축비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 시설에 들어가서 살려면 비용을 많이 내야 하니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 '은학의 집' 이름의 의미

**강교자:** 처음에는 명칭이 '학수관(鶴壽館)'이었다가 많은 논의 끝에 '은학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지요.

**유성희:** 당시 젊은 간사로 일하면서 '은학의 집'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신선했어요. '노인복지관' 등과 같이 딱딱하지 않고, 고귀한 느낌이었어요.

**김재화:** '은', '학' 이 두 글자 모두 고풍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건축

**강교자:** '은학의 집' 건축 디자인은 건국대 강병근 교수가 설계를 맡아 주셨는데 노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이다 보니 채광과 통풍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설계하셨어요. 당시 보기드문 노인 맞춤형 건축이다보니, 건축을 공부하는 대학생들도 자주 방문했어요.

**차경애:** 중정형 디자인도 인상적이었어요. 가운데 공간으로 부터 모든 곳으로 문이 연결되도록 했었지요.

**유성희:** 당시 환기를 위한 창호시스템을 수입하여 배로 실어서 들여오기도 하고, 안전을 위해 (문)턱을 다 없애고 본관 안까지 앰블런스가 들어오게 하는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구조였어요.

**김은경:** 사실 은학의 집 건축은 Y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 뭐 하나 할 때마다 처음 설계에서 계속 줄여서, 매번 처음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강 교수님이 어찌나 진득하게 밀어붙이시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분 의견대로 끝까지 간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은학의 집을 개관하기까지

**유성희:**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모금행사와 작품전시회, 음악회도 생각나네요. 니트코트를 직접 제작해 팔기

1) 은학(銀鶴): 세월의 무게로 굽어진 어깨와 굽어진 무릎을 다시 펴고 곧게 뚫는 학의 모습처럼 어르신들이 살아가시기를 염원하며 은빛 학에 비유함

도 하고, 그 덕분에 정말 좋은 코트들을 몇 개 사서 어머니도 입으시고 저도 오랫동안 입었었어요.

**김재화:** 지금 생각하면 다 좋은 추억이지요. 모두가 헌신을 다해서 기금 마련도 하고 마음을 모았지요.

**강교자:** 당시 내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힘들었지요. 정말 모두가 목숨 걸고 했었지요.

**유성희:** 개관식에서 당시 담당이셨던 김은경 선생님이 감사패를 받으실 때는 실무자로서 정말 눈물이 났었어요.

## 2015년 다시, 노인문제를 보다

**김재화:** 요즘 방송을 보다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도 남자 노인에게는 '선생님'하며 격식을 갖춰 부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여자 노인에게는 '할머니'라고 오히려 너무 친근하게 부르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은학의 집에서는 '000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르신보다는 '000 회원님' 이렇게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김은경:** 저는 꽤 많은 경로당, 노인정들을 돌아다녀봤어요. 다니면서 느끼는 게 '왜 노인들은 낮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먹을 것도 많은데 사실 프로그램이 없어요. 문제는 이 사회가 '아, 그 나이대의 노인들이라면 그런 삶을 사는구나'라고 무의식 중에 규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노인 시설에서 어떻게 하면 노인들에게 질 높은 대우, 또 질 높은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을텐데 말이에요.

**강교자:** 은학의 집을 계획하고 있던 당시에는 사실 '노인문화' 쪽으로 중점을 뒀서 준비를 했었죠. 노인들이 모여 함께 음악도 듣고 전시회도 보고 하는 문화공동체 같은 거였죠. 에스터 선생님이 하와이에 계시실 때 병문안을 갔었는데, 저녁쯤 되었을 때 그 병원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멋지게 옷을 갈아입고 모자까지 쓰시고 1층 로비로 다 내려가시는 걸 봤어요. 뭐를 하나 하고 자세히 보니 로비에서 다같이 스크린으로 오페라를 관람하는 걸 보고 '아, 이거다.



이런 걸 해야 하는구나' 싶었지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복지'라는 것을 '먹기 힘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먹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노인문화에 관련된 무언가를 하려면 지원을 받기 어렵고, 운영 자체가 어려워져 버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개척하고 만들어서 노인문화의 시발점이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다 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들도 있고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유성희:** 말씀하신 것처럼 '은학의 집'이 아쉬운 점은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이 가고 있는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아무래도 정부의 복지정책 쪽으로 가야 운영과 유지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 등에서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 일반 시설로서 어려운 점도 많지요. 하지만 은학의 집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시설복지와 재가복지가 정착된 모델로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이 좋고요, 사회복지사들과 요양보호사분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실제로 지역에서 공헌이 큼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은학의 집'을 꿈꾸며

**강교자:** 사실 문화 쪽을 우리가 바라지만 현재 은학의 집은 노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문화행사들을 확대하는 것이 조금 어렵겠지요.

**김은경:** Y가 이미 가지고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은퇴한 고령자들이 모여 활동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회원활동이 살아날 수는 없을까 생각해보게 되요. 활동할 분야를 안내해주면 은퇴한 분들이 자원봉사로 노련함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고령자를 위한 좋은 길 닦기이자 좋은 돌봄의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유성희:** 김은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대에 은퇴하지만 Y에서는 60대부터 시작하는 하나의 특별한 모델, '실버Y'를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은학의 집은 요양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꿈꾸던 것처럼 모든 프로그램을 활발히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저의 꿈을 꿀 때 어느 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2의, 또 제3의 '은학의 집'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5년 전에 이 곳에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지금의 은학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 어른들께서 함께 꿈을 꾸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YWCA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문화와 60대 이상의 회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노력들이 모여서 'YWCA 은학의 집'만의 특별한 모델을 펴뜨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교자:** 은학의 집이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또 다른 역할을 찾고 잘 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혜와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가사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을, 국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교육 등 가정내 돌봄서비스는 이제 우리 국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다. 또 핵가족화, 고령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속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자리는 크게 늘어날 것 또한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인해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글: 편집실)

## 거리로 나선 가사노동자들

아침 드라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 시어머니도, 친정 어머니도 아니다. 화려하고 넓은 집에서 집주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아줌마! 물 좀 갖다 줘요."라고 하면 가장 빠르게 집주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성들. 우리에게 파출부나 도우미 아줌마니로 익숙한 이름. 하지만 이들에게도 엄연히 이름이 있다.

지난 6월 16일(화) 국회 앞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파랑, 초록, 노랑색의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두른 여성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가사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을, 국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그렇다. 그들의 이름은 '가사노동자'이다. 이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사노동자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노동자회 부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는 공동으로 모여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과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 돌봄서비스는 사회화되어야 합니다

2010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가사노동자단체들

과 노동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발의한 지 어언 5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제적으로는 2011년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채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1년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ILO 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4일, 올해 하반기 입법을 거쳐 내년에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사종사자를 정식 고용하는 인증업체를 육성하여 시장을 양성화하고 종사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다.

하지만 발표 뒤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입법예고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캠페인 전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입법(안)에 관한 제안과 향후 과제들을 나눴다.

발표자로 나선 표대중(노무법인 길) 대표는 '한국가사노동자의 현실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화 방안-고용노동부 특별법(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돌봄서비스와 가사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거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 발표를 시작했다.



**가사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자의 권리를**

이 날 토론회 이후 진행된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피켓과 현수막으로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성명서를 통해 다음의 과제들을 촉구했다. 첫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가사노동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 근로장려금,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사노동자를 4대 보험에서 제외하고 있고, 정부 지원의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아니면 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있다. 표 대표는 제도화를 위한 향후과제로 첫째, 특별법의 추진과 함께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를 삭제하고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비준 등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가사노동자들의 근로형태가 호출형 근로 등으로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서 특수고용노동자로 만드는 것보다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확대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정책의지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보호라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이나,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자, 이용자, 제공기관의 의견과 가사서비스 시장의 반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면서 제정되어 직접고용된 가사노동자와 그를 고용하는 인증기관, 그리고 인증기관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 가사서비스의 공식화에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표를 마쳤다.

째, 정부는 이미 발표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을 즉각 발의하고, 가사노동자들이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업체를 육성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사종사자뿐 아니라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등 모든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는 모든 국민이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노인가구 등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7월 현재 17개국에서 비준한 ILO 189호 협약의 또다른 이름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다. 협약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인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 보장을 하는 것은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인식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사회적 존중과 인권, 노동권을 보장받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 돌봄과 보육, 교육과 복지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YWCA가 운영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하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운영 사업'은 보육사각지대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실시돼 오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보육사회 구현"을 목표로 2015년 현재 제천, 동해, 파주, 하남지역에 5개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보육사각지대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제공해오고 있다.

글 | 이혜련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 간사)

제천YWCA에서는 화산동과 덕산면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내 보육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형적인 농촌에 위치한 덕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이윤희 센터장과 화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의 김미경 센터장은 매년 생명꿈나무돌봄센터의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인 2월 중순경부터 센터의 3월 개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들과의 전화통화로 사업준비를 시작한다. 도농복합 소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기관이 자리잡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내 몇 안되는 돌봄+보육+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중이며, 그만큼 지역사회내 위상 또한 견고하다.

**도농복합 소도시에 위치한 화산생명꿈나무돌봄센터**

제천시는 인구 14만의 도농복합의 소도시로 경제 구조가 취약하여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 특별히 화산생명



꿈나무돌봄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화산동은 상가 및 주거 혼합지역으로 영세상인들이 주로 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인 영서동과 강제동은 소규모 공장 과 농산물 공판장, 논농업, 과수원이 주종인 도농 복합동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는 주로 영세상인, 맞벌이 저소득 가정, 이주민 또는 새터민 저소득 가정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35명의 아이들이 화산생명꿈나무돌봄센

터를 이용하고 있다.

화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의 김미경센터장과 보육교사들은 센터의 운영을 하지 않았던 3개월의 휴지기 동안에도 항상 아이들의 상담을 문의하고, 어쩌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손잡아주시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만날 때에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정말 꼭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된다고 한다.


###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의 보육 모델을 꿈꾸는 덕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제천YWCA가 운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하고 있다. 덕산면과 인근 수산면은 제천시 중심에서도 1시간 가량의 거리에 있는 농산촌 지역으로 약초, 양채류, 더덕,

고추, 송이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전형적인 밭농사 중심 지역이다. 지역주민의 8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 작물인 양채 작물의 특성상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농번기에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각 가정 사정에 맞는 탄력적 보육시간이 요구되지만 덕산면 소재의 인근 어린이집이 1곳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인력 등의 문제로 야간 보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농산촌 지역의 특성상 다문화 가정이 많고 이들 가정 중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주변의 사설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이주여성 모친의 한국어 구사 능력도 떨어져 아동의 언어습득, 학습장애 및 사회성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에 덕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개소한지도 6년차가 되었다. 이윤희 센터장은 덕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돌봄센터가 되었다고 말한다. 많은 가정에서 센터 이용에 관한 상담을 의뢰해오고 있으며, 인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도 호의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어 공교육 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센터를 소개시켜 주며 직접 상담까지 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농촌 지역에서의 보육은 이제 지역사회 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화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와 덕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돌봄+보육+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보육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청소년 금융교육 올해로 10주년 찾아가는 버스로 재미 더해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실 씽크머니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9년 동안 약 38만 명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했고, 올해 처음으로 금융교육의 기회가 적은 산간·도서지역 거주 청소년들을 직접 방문하여 금융관련 지식과 실생활과 연관된 상담을 제공하는 '재미있는 금융교육 씽크머니 버스(BUS)'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글 | 홍현정 (한국YWCA연합회 협력사업팀 부장)

한국YWCA가 씨티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속해온 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 Money)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2006년에 38개 회원Y에서 첫 운영을 시작하였고, 매년 30여개 지역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였다. 해를 거듭하면서 각 지역에서는 NIE 금융교육, 모의 창업, 재활용마켓, 또래코칭, 경제 역할극 등 창의적인 씽크머니 활동들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초에 진행된 '청소년 단체 지도자 대상 전문연수'에서 씽크머니가 창의 인성 중심의 교육으로 소개가 되었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회원Y의 전문성과 시도 교육청, 언론사, 학교 등과 탄탄하게 연계되어 있는 회원Y의 지역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점차 사회에 성공적인 금융교육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6월에는 2015년 한국금융교육학회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한 '학교 금융교육 발전 방안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씽크머니의 금융강사 인증 사례에 대한 발제 기회가 주어졌다. 금융권의 금융교육 담당자, 교육부 관계자, 경제 신문 기자, 학교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씽크머니가 추구하는 금융 가치관 교육에 대해서 알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실생활과 연결된 청소년 금융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10년 전 청소년 금융 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이 미흡했던 시절부터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던 YWCA의 사명감이 전달되었기 때문일까? 심포지엄이 끝난 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김종창 회장이 찾아와 "YWCA가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하셨다.

### 지역 강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금융교육

발표를 준비하며 기독교여성운동체인 YWCA에서 하고 있는 금융교육이 다른 금융교육과 어떤 점이 다른지 깊이 있게 고민했다. 씽크머니의 특징은 첫째, 그 지역을 잘 아는 강사가 그 지역 청소년들을 담당한다. 이 경우, 학생들과 그 지역의 경제 상황, 학교 문화, 관심사에 대한 공유가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에게 금융교육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청소년들을 YWCA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센터, Y-틴 등 지역사회 공동체로 연결할 수 있다.

둘째, 금융교육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강사 연구모임을 통한 자체 평가, 회원Y 실무자에 의한 평가, YWCA연합회 수업참관에 의한 평가 등 총 3단계로 씽크머니 수업을 평가하고 매년 개

선 방안을 모색한 결과 10년간 YWCA의 씽크머니는 금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는 평을 받게 되었다.

셋째, 청소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YWCA의 활동가들을 통해 전달된다. 씽크머니의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먼저 주고받는 이야기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했어?”라는 질문이다.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그 시간을 통해 배운 게 많다는 소감을 남기면, 이일 저일 맡아 하며 정성없는 하루를 보내 지쳐있던 선생님들도 다시 새로운 힘을 되찾곤 한다.

#### 앞으로의 씽크머니: 나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있는 금융생활

그런데, 이렇게 씽크머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더욱 직면하게 되는 물음이 있다. ‘그래서 씽크머니는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이다. 아이들이 금융교육을 받고 나서 돈을 잘 버는 법과 자기가 번 돈을 잘 관리 하는 법만 배운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혹시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것이 좋지만 하던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 돈만 좇아가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잘 발전해온 씽크머니의 10년을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씽크머니가 이렇게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 씽크머니 수업에서는 경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창의적인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고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그동안 씽크머니 교육이 대부분 ‘나의 금융생활’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금융생활’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YWCA와 씽크머니”는 10년째 이어온 씽크머니 강사 교육에서 늘 첫 시간에 이루어지는 강의 내용이다. “돈을 버는 방법, 돈을 관리하는 방법만 가르친다면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한미미

씽크머니 자문위원장의 강의 내용처럼 씽크머니는 우리 청소년들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9년동안 씽크머니 누적 수혜자수는 3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YWCA금융강사 1,265명, 씨티강사 566명이 배출되었다. 이제 씽크머니의 10년을 축하하면서 2016년 1월에는 아시아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국제 캠프도 진행 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결같이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을 지원해 온 한국씨티은행과 열정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신 회원Y 실무자와 지역의 씽크머니 강사들, 연합회 활동가들과 자문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씽크머니가 10년동안 걸어온 길

- 2006년 체험교실, 학교특강, 토요일학교로 씽크머니 시작. 중학교 교재,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 2007년 협력학교 및 방과후 학교 시작, 초등학교 고학년 교재 및 영문 교재 개발, 학부모 금융교실 시범 운영, 홈페이지 개설
- 2008년 초등학교 저학년 교재 및 보드게임 개발, 학부모 금융교실 확대.
- 2009년 학부모 교재 및 고3 교재 개발, 씨티 강사 특강 시작, 강사 연구모임 시작
- 2010년 다문화 교재 개발.
- 2011년 씽크머니 평가연구 진행, 씽크머니 교재 개정, 씽크머니 동아리 시작
- 2012년 서울시 교육감 인정도서로 채택, 협력학교 17차시 시작 (사)한국경제교육협회 주관 제3회 경제교육대상 수상
- 2013년 씽크머니 모바일 어플 개발, 제3회 경제교육진흥박람회에서 홍보부스 운영
- 2014년 씽크머니 영문 모바일 어플 개발, '아동·청소년 금융복지 교육사' 온라인 강사교육 과정 시작, 씽크머니 미래발전 심포지엄 개최
- 2015년 '찾아가는 씽크머니 버스' 시작, 금융상담가 시작,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을 위한 교재 개발 중
- 2016년 아시아 청소년 금융교육 캠프 개최 (예정)

## 재미있는 금융교육 '찾아가는 씽크머니 버스'



우리나라에는 엄마와 함께 화폐 박물관, 금융체험관을 찾다니며 돈 관리의 중요성을 배우고 '조기 금융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자기 통장이 없거나 내가 필요한 돈은 부모님한테서 다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특히 산골 지역으로 갈수록 금융 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청소년들의 수는 더욱 많아진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금융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소외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귀여운 씽크머니 캐릭터가 그려진 '찾아가는 씽크머니 버스'가 7월 9일 파주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체천, 안산, 광주, 남원, 안양, 수원, 남양주, 진주, 충주, 목포의 소외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찾아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돈의 가치와 올바른 돈의 사용에 대해 배우고 생산, 소비, 판매, 저축, 나눔의 활동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씽크머니 버스가 파주Y 강사들과 함께 찾아가는 곳은 전교생이 39명으로 구성된 웅담 초등학교이다. 호기심에 가득찬 눈망울로 강당에 모여든 아이들에게 강사 선생님은 돈을 버는 목적, 자신의 용돈을 관리해야 하는 목적 등 올바른 금융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부터 용돈 기입장 사용 방법, 은행 이용 방법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생활과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40분간 수업을 진행했다. 앞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다. “용돈을 쓸 때는? (ㄷ ㅅ ㅎ) 것을 산다.” 아이들이 한목소리로 외쳤다. “필요한 것!”

다시 선생님이 묻는다. “필요한 것의 기준은? (나의 ㅍ을 위하여) “ 아이들은 다시 한 번 소리쳤다. “나의 꿈을 위하여!” 걱정과는 달리 소리를 지르며 대답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진 체험활동 시간. 5~6명이 한 조가 되어 기업을 만들고 기업 이름, 기업 내에서의 역할과 목적을 정했다. 그리고 냉장고 자석, 우드 목걸이, 우드 열쇠고리, 비즈 팔찌 등의 사업 항목 중에서 원하는 물품을 사서 기업의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해진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각자의 전략에 따라 물건을 제작했으면, 그 다음은 소비와 판매의 시간이다. 씽크머니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고, 팔기도 하면서 이윤을 남겼다.

강의를 들을 때 발표를 시키면 쭈뼛쭈뼛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잘 이야기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물건을 팔 때는 목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강당이 떠나갈 것 같았다. 구매 종료 후, 자기가 번 돈을 YWCA-CITI 씽크머니 은행에 가서 저금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마쳤다. 아이들의 표정에는 시작하는 시간보다 더 큰 뿌듯함이 묻어있어 마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

파주 웅담 초등학교 아이들이 '씽크머니'를 경험한 시간은 아이들의 인생에 비해 순간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한 금융생활이 앞으로 계속 금융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한국YWCA, 함께 기도하며 모금운동 동참

글 | 최지혜 (한국YWCA연합회 국제팀 팀장)



네팔YWCA에서 보내온 구호 현장 (왼쪽 의료캠프 운영, 오른쪽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운영)

지난 2015년 4월 25일, 네팔에 규모 7.8 강진이 발생하였다. 대지진에 이어 5월 12일 2차 강진이 발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규모 4~5에 해당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 네팔을 휩쓸고 간 대지진으로 사망자만 8800여 명에 이르고, 수 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들의 집과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네팔의 많은 이들이 대지진이 남기고 간 공포 속에서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있다.

## 세계YWCA와 네팔YWCA, 회원국YWCA로 기도와 긴급구호를 위한 모금 요청

세계YWCA와 네팔YWCA는 즉시 네팔 대지진의 피해를 알리고 전세계 회원국YWCA에 기도와 구호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한국YWCA도 네팔의 피해자들과 네팔YWCA 회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네팔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지난 5월과 6월 전개된 모금 운동에 연합회와 38개 회원YWCA와 부속시설이 함께 참여하였고, 네팔YWCA로 지원금 27,627,657원(USD 24,851)을 전달하였다. 네팔YWCA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와 긴급구호활동과 이재민과 복구 지원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소식을 전해왔다.

## 네팔YWCA에서 온 소식: 긴급구호팀 조직하여 구호와 복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안녕하세요. 한국YWCA 후원자 여러분!  
네팔YWCA는 피해를 입은 회원들과 도움이 절실한 가족, 주민들을 위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활동 전개를 위해 네팔YWCA는 직원들과 봉사자로 긴급구호팀을 조직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긴급의료 지원과 상담, 구호 물품과 식량, 임시 천막과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가정을 방문하여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이제 우기에 접어들고 있어 네팔YWCA 긴급구호팀은 가장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정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주는데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팔YWCA는 지금까지 400가정을 포함하여 총 1,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들을 돕고 복구 지원을 했습니다.

네팔YWCA는 강진과 여러 차례 계속된 여진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는 어린이를 치료하기 위한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캠프 운영과 무너지고 파괴된 학교와 집의 지붕 보수작업 등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지진 피해 어린이를 위한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대지진의 피해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3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비가트(Dhobighat) 지역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트만두(Kathmandu)와

랄리트푸르(Lalitpur) 계곡 등 다양한 지역에서 281명의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학생 교육 지원**: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11학년, 12학년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교재를 지원하고, 피해가 극심한 카트만두(Kathmandu)와 다딩(Dhading)에서 온 400명의 학생들에게 교육 학습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의료캠프 운영**: 시간이 지날수록 대지진의 트라우마로 발전하게 되는 급성 스트레스 증상과 정서불안, 척추 통증과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콤랭(Khoplang VDC) 마을과 구르카(Gorkha District)에 세워진 의료캠프에서 함께 의료적인 지원을 하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캠프에서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치료와 약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지붕 보수작업과 역사유적지 보수작업 지원**: 지진으로 많은 학교와 가정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은 2개 학교와 11개 가정의 지붕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카트만두 남쪽에 있는 시골마을 부그마티(Bungmati) 지역의 역사 유적지 보수작업을 지원하고자 작업에 참여하는 113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팔YWCA로부터.

## 지속적인 중장기 활동, 앞으로의 활동 계획

네팔YWCA는 대지진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단기지원에 머물지 않고 상황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기본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생존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피해자들이 다시 일하고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무너지고 파괴된 집의 유지와 보수, 저비용의 임시거주지 제공, 필요에 따른 일상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은 여전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많은 할 일들이 앞에 놓여 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며 긴급구호활동과 피해복구, 중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한국YWCA가 있어, 큰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네팔YWCA의 드라오파티(Draupati Rokaya) 사무총장과 긴급구호팀이 한국YWCA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충격적인 대지진 앞에 아직도 힘겹게 싸우고 있는 네팔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 내 아이의 생애 첫 나눔, 북한어린이와 함께!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을 통해 북한 어린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후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기부도 여러 형태로 다양해지고 있다. 기부와 나눔으로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후원자들의 기념후원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결혼, 출산, 첫 생일 등 일생에서 중요한 날에 나눔을 실천하며 평화를 만드는 날로 기억하고자 하는 기부자들의 이야기는 후원자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글 | 박효정 (한국YWCA연합회 복지사업단 간사)

한 아이의 엄마로 1년을 울고 웃으며, 하루 24시간을 꽉 채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잠깐의 자유시간도 주지 않는 아이를 보며 힘들어 울기도 했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해 답답하기도 했다. 품에 안긴 작은 아이를 보며 여태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책임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이가 커가고 엄마의 작은 말과 행동에도 즐거워하는 아이의 웃음에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잊을 수 있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며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드는 생각이 있었다. 돌봐주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 제대로 쟁김을 받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삶은 어떠한가. 내 아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내 아이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웠다. '내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다른 아이들이 눈에 보이더라.'라는 선배 엄마들의 말이 정말 공감이 갔다.

그래서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며, 조금 의미있는 일을 함께 하고 싶었다. 아이가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의 감사함이 나눔이 되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내 아이의 생애 첫 나눔을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YWCA의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이었다. 북한 아이들의 상당수는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4명 중에 1명 이상이 발육저하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가 이 땅의 한민족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생명의 온기를 나누어 주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딸 윤세아 양의 돌을 맞아 기념기부를 한 박효정 간사

내 아이가 컸을 때, 이 나눔의 시작을 기뻐하고 기꺼이 동참해주리라 믿는다. '나눔은 공감이다'라고 생각하는 아빠엄마의 마음처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알고, 행복과 슬픔의 감정도 공감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나눔의 기쁨도 알 수 있으리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Y의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이 그 축복의 과정에 북한 아이들의 빛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먹고 자라며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엄마들의 마음으로 북한아이들을 품고 갔으면 한다.

내 아이의 생애 첫 나눔이 모든 북한어린이에게 희망을 전달하기를 바란다.



##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현황

2015년 6월 1일 ~ 6월 30일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 기부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청주Y), 고은희, 곽지영, 구정혜, 국승훈, 권민혜, 권순복, 권인택, 권진, 김가현, 김건세, 김경희, 김명희,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수연, 김애련, 김영자, 김은경, 김일곤, 김재연,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나윤지, 남희숙, 문권희, 문미란, 문인수, 명진숙, 민선영, 박보람, 박영수, 박영순, 박용욱,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정미, 백혜진, 서명희, 성동숙, 송록희, 송윤경, 신인숙, 심명자, 심은옥, 안은정, 안정희, 안혜진, 양종원,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 이지은, 이천진, 이행자, 이향재, 이혜련, 이혜진, 임강숙, 임국이, 임진영, 임향옥, 장미란, 장경자, 장선희, 장윤우,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전현주,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 순, 정 용, 조영미, 조은영, 조은희, 주락현, 진인식, 채정희, 최수산나,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심, 홍현정, 황홍백 (총118명)	1,906,000
개인 기부	김미, 김행영, 방원철(성광교회), 이지은, 정수민(전주연)	773,93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마포구청 신우회, 아현감리교회(조경열목사), 약전평강교회, 한양대여성교회	460,000
회원YWCA	대전Y, 서울Y	673,900
합 계		3,813,830



YWCA 탈핵 불(火)의 날 캠페인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제3차 운영위원회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 연합회 소식

### 7월 월례아침기도회

7월 1일(수) 오전 8시 연합회 강당에서 7월 월례아침기도회가 있었다. '손을 펴서'라는 제목으로 이세형 목사(협성대 신학과 교수)가 말씀을 전했다. 지난 6월 고리1호기 폐쇄 결정에 감사하며 YWCA 회원들이 앞으로 도 탈핵의 길을 선포하며 걸어가길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 메르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 YWCA 탈핵 불(火)의 날 캠페인

YWCA 탈핵 불(火)의 날 캠페인이 서울 명동 연합회 앞과 전국 회원YWCA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다. 메르스의 여파로 연합회 주관의 캠페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6월 16일 제64차 캠페인에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까지 서명에 동참해 준 명동 시민들에게 비타민 음료를 나눠드리며 "고리1호기 폐쇄는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승리입니다!"라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방학을 맞아 청소년 탈핵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있다.

###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 토론회

지난 6월 16일(화) 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 4주년 및 제3회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이해 토론회와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가사노동자 약 50명이 참석하여 노동권 보장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요구하며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제정 촉구 발언,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27쪽에)

###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제3차 운영위원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수상기업 연찬회

7월 2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2014년에 진행된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수상기업을 대상으로 연찬회가 진행됐다. 작년 수상기업 관계자 12명과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한국사회적기업협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3일(금) 오전에는 벡스코내 컨벤션홀에서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제3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 찾아가는 씽크머니 버스

연합회는 7월 9일(목) 파주 웅담초등학교 전교생 39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금융교육인 '재미있는 금융교육 찾아가는 씽크머니 버스'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씽크머니 버스'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주년을 맞는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실 씽크머니'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금융교육의 혜택이 적은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재미있는 금융교육 찾아가는 씽크머니 버스'는 각 지역 회원YWCA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33쪽에)

### 돌봄사회화 성공사례 연구모임

가사서비스 시장의 급격한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돌봄사회화 성공사례 연구모임'이 매주 1회씩 총 5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2015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차에는 한국

기술교육대학교 이은영 교수가 여성관련 돌봄노동시장 변화와 YWCA에 관해, 두번째 발제는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돌봄노동시장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강의했다. 2회차는 7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유료알선업의 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다래교실 회원Y 참관수업과 간담회

한국씨티은행과 함께하는 2015년도 다문화시대 청소년 직업교육 다래교실은 지난 4월 의정부Y를 시작으로 안산Y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천안Y, 성남Y 등 회원YWCA 및 협력 기관을 대상으로 참관수업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참관수업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회원Y의 고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방안을 기획하고 나눴다.

###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

7월 16일(목) 국회 앞 이룸회관에서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비례대표확대와 지역구 여성할당 강화를 통해 여성 국회의원 30%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와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 대북지원 연구모임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은 광복70주년을 맞아 한국Y 평화운동 점검과 새로운 방향수립을 위해 대북지원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4월 28일 1차 모임에서는 '김정은 체제변화와 대북지원'(이우영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을, 6월 17일 열린 2차 모임에서는 '한국YWCA 평화운동'(강교자 복지사업단 이사장)과 '탈북자와의 YWCA 평화운동'(윤명선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위원)을 논의했다. 7월 15일 3차 모임은 YWCA 평화운동의 성서적 의미와 역사적 조망을 주제로 최만자 Y아카데미위원회 위원과 박용옥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위원

의 강의와 토론시간을 가졌다. 향후 이 모임을 통해 인도적 대북 지원 방안과 YWCA 평화운동의 방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 제1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오는 9월 1일까지 제1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후보 추천을 받는다. 시상 부문은 대상, 젊은지도자상, 특별상으로 나뉘며, 추천 대상은 전문적인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여 여성 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대한민국 여성, 젊은지도자상은 전문성, 창의력, 헌신과 기여 등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50세 이하의 대한민국 여성, 특별상은 세계화 시대의 문화 다양성과 평화와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온 여성 또는 단체이다. 접수방법은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www.ywca.or.kr)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우편접수하면 된다.

### 광복70주년 분단70주년 기념

#### YWCA평화기도회와 YWCA평화운동 세미나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YWCA평화기도회와 세미나를 8월 12일(수)에 개최한다. 7월 17일(금)부터 8월 10일(월)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YWCA회원들의 기도(단문 기도)'를 온라인으로 모은다. 이메일(ywcamail@naver.com)이나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www.ywca.or.kr)에 방문하여 참여 가능하다. 이 기도들을 모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YWCA회원 공동 기도문'을 작성하여 함께 기도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등정

- 2015년 양성평등주간기념 유공자 포상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이채욱(남원YWCA 회장)  
지현주(대구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배정미(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 신임 사무총장  
부형주(제주Y) 2015. 7  
송민희(광명Y) 2015. 6  
장옥현(성남Y) 2015. 6

# 회원YWCA 양성평등주간 행사 (2015. 7. 1.~7. 7.)

## 논산YWCA | '성 평등 특강'

논산YWCA가 주최하고 부속시설 논산YWCA가정폭력상담소, 아름다운,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공동 주관한 '2015 제1회 양성평등주간행사 성 평등 특강'을 7월 7일(화) 놀이컨벤션 웨딩홀 4층에서 지역사회단체장, 회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여성의 눈으로 논산을 보다'라는 주제로 성인지 관점의 이해와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제안으로 열린 특강으로 진행하였다. 일본 간사이대학을 졸업한 심미혜 박사가 '성 인지 관점의 이해'를 미국하버드대학 연칭연구소 연구교수인 김영관 박사는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제안'이란 주제로 각각 특강을 실시했다.

## 대전YWCA | 미니취업박람회 '여성취업한마당'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7월 3일(금) 대전광역시 여성발전복지기금을 지원 받아 미니취업박람회 '여성취업한마당'을 개최했다. 결혼, 육아로 인해 경력에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와 재취업을 돕고자 마련되었으며, 구직자 300명이 참여해 현장면접, 이력서접수, 취업특강과 직업체험 등을 실시해 성황을 이루었다.



## 사천YWCA | 양성평등주간 행사 부스 운영

사천시 주최로 7월 7일(화) 사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2015년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관내 여성단체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지 감수성 증진 캠페인과 EM 발효액 배부 및 이동소비자상담실 부스 운영을 했다. 돋보기를 활용해 성인지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진 전시와 양성평등의 고정관념 벽을 무너뜨리는 캠페인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수원YWCA | 캠페인과 친환경 탈취제 나눔행사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양성평등주간의 역사와 취지 등을 알리는 캠페인과 함께 친환경 탈취제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캠페인은 양성평등주간이 끝난 이후 9일까지 진행되었다. 7월 7일(화)에 회원들을 50여 명에게 친환경 탈취제를 나누어 주었다.

## 양산YWCA | 양성평등 가족신문 전시회

7월 2일(목) 양산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이어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로비에서 '양성평등 가족신문 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지역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가족신문 만들기 공모전'을 진행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 5편과 우수작 20여 편을 모아 양성평등주간 동안 전시했다. 양성평등 가족신문 전시회와 양성평등실현 캠페인을 통해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인식변화를 가져오는 데 일조하였다.



## 여수YWCA | '차이는 인정 차별은 거부!' 캠페인

7월 2일(목) 오후 6시부터 신기동 부영3단지 앞 도로변에서 실무자·이사·회원 40여 명이 퇴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인식 캠페인을 실시했다. 양성평등주간을 올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을 알리고 여성과 남성에게 각기 다른 가격의 음료판매를 통해 동일노동에서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의 부당성에 대해 알리는 한편 설문스티커 붙이기로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며, 그 일은 바로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됨을 알렸다.



# 복부

## 강릉YWCA | 정경진 간사

**신임 차기위원 교육**  
6월 18일(목) 회원위원회 주관으로 신임위원과 차기위원 대상자들을 위한 훌씨뿌리미 교육을 실시하였다. 1부 김희숙 회장의 강릉YWCA 소개로 Y정체성과 강릉Y의 활동을 알고, 2부 코사지 만들기로 회원 간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강릉YWCA 역사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동해YWCA | 안지원 간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6월 30일(화) 동해경찰서 청옥마루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30여 명의 청유단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전경애 회장의 환영사와 김혜숙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동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가정폭력, 아동폭력,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좀 더 원활하고 적극적인 2015년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 서울YWCA | 성지희 간사

**2015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서울Y는 유한김벌리와 함께 2009년부터 해마다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를 열고 있다. 올해는 6월 20일(토), 27일(토) 두 차례에 걸쳐 90쌍의 신혼부부와 함께했다. 한성렬 교수(고려대 심리학과)의 결혼 특강, 방대옥 대표이사(다음세대재단)의 부부 소통 특강과 김영한 소장(별자리사회심리연구소)이 이끄는 소시오드라마를 통해 신혼기 부부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해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가 되도록 돕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저

출산과 가족 갈등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학교는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 속초YWCA | 정인숙 간사

**탈북청년 사업가 강민을 만나다**  
6월 30일(화) 다문화가정 회원, 이사, 실무자, 살롱교회 목사님과 함께 탈북청년 강민을 만났다. 강민 청년은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해 고성 지역에서 해당화를 재배하고 있으며 잼, 비누, 화장품 등의 원료로 가공,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날 실무자들과 회원들은 해당화 발을 직접 일구고,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봉사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강민 청년으로부터 북한의 현지사정과 남북의 차이 및 평화통일에 대한 견해,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에 어려움 등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 속초Y는 이번 탈북민과의 만남을 통해 평화통일의 방향성 및 극복해나가야 할 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활동성 있는 평화통일운동을 진행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현실이 되는 소망을 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 인천YWCA | 최슬기 간사

**카페 오아시아 수익금 기부**  
6월 26일(금) 오전 11시에 포스코가 설립한 사회적기업인 (주)송도에스이(대표 김용옥)의 카페 오아시아 2014년 운영 수익금을 인천YWCA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페 오아시아는 다문화가족과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포스코의 후원으로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인 (주)송도에스이가 운영하며 포스코 건설 건물 내에 자리하고 있다. 인천YWCA는 수익금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을 한다.

춘천YWCA | 진소정 차장

보육시설조리원 교육

6월 8일(월)부터 26일(금)까지 15일동안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조리원 교육을 진행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조리사 보조역할로 취업할 수 있는 이 과정은 높은 연령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 여성들에 알맞은 직종으로 총 22명이 참가하였다. 수료한 모든 교육생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갖게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

고양YWCA | 남궁혜경 국장

임형주와 함께하는 평화콘서트

6월 18일(목)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임형주와 함께하는 고양YWCA 평화콘서트'를 열었다. 평화콘서트는 고양YWCA 합창단, The Passion,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의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광복 70주년과 2015년 고양시 평화통일 특별시 선언을 축하하고 고양시민과 함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내었으며, 특별히 피날레 무대에 '우리의 소원'을 다함께 불렀다. 콘서트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보내기 성금으로 사용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일상의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부천YWCA | 이지원 간사

2015년 국민행복정책 모니터단 1차 워크숍

7월 2일(목)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원하여 진행되는 국민행복정책모니터 활동의 1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부천YWCA는 5개월 동안 모니터링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천시 성평등정책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모니터링 활동은 부천YWCA 회원 뿐 아니라 부천여성 청소년센터와 부천여성회관, 가족공감네트워크 등 지역단체의 여성회원들의 참여로 진행되며 부천시청 여성청소년과 공무원들도 함께 성평등 정책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교육을 듣고 실제로 모니터 활동을 진행할 지역을 선정했다. 7월 중에 있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부천지역이 누구에게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장애가 없는 성평등한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성남YWCA | 전아영 간사

씽크머니 CEO 체험수업

6월 22일(월) 금광동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씽크머니 경제교실이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인 CEO 체험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비즈공예를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고,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가져와 판매하기도 했다. 이날 수업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풍성한 나눔의 장에 참여했고, CEO 체험을 통해 물건 유통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안산YWCA | 문성은 간사

탄저균 반입사건 규탄 시민 캠페인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6월 9일(화)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촉구'를 위한 안산시민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또한 안산 시민들에게 탄저균 반입사건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8월 말까지 중앙역과 상록수역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지속할 계획이다.

안양YWCA | 김희정 간사

연변 방문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

안양Y의 창립 30주년을 준비하고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장들과 이사진 9명이 지난 6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연길과 백두산 일대를 다녀왔다. 가정집에 마련된 연변민들레 사무실 온돌방에 둘러앉아 '동북아의 중심 연변을 주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고 앞으로의 비전과 협력을 위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연변 조선족의 가치를 제



대로 평가하고, 남북 간에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동북아공동체를 주도하고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척박한 땅에서도 곳곳하게 자라나 꽃을 피우고 흙씨를 퍼뜨리는 민들레처럼, 연변 민들레도 널리널리 생명의 꽃을 피우며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약정부YWCA | 이미진 간사

컴퓨터활용전문가 양성과정

의정부YWCA새일센터에서 4월 29일(수) 개강한 직업교육훈련 '컴퓨터활용전문가 양성과정'이 7월 10일(금) 수료될 예정이다. 컴퓨터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2명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ITQ한글, 엑셀, 파워포인트와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에 도전하는 일은 두렵고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22명이 하나되어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가르쳐주고 격려해 준 결과 ITQ자격증을 따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훈련생 전원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부

대전YWCA | 김지탄 팀장

책소동(책으로 소통하는 동네) 이야기

6월 2일(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책소동(책으로 소통하는 동네) 이야기를 진행했다. 평소 그냥 지나쳤던 우리 지역의 문화와 지역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자 대흥동 문화 투어를 진행했다. 대전여자중학교 강당(현, 대전갤러리), 이공갤러리, 북카페 이데 등을 방문하여 지역의 문화 공간을 둘러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YWCA | 배진희 간사

성경공부반 모임

세종YWCA는 3월부터 7월 말까지 매주 1회에 걸쳐 지역의 평신도 및 목회자를 대상으로 '어? 성경이 읽히지네' 성경공부반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구약성서를 이어 신약성서를 좀더 쉽게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기독 지도자 양성과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제천YWCA | 이경희 부장

여성의 이름으로 탈핵을 외치다

6월 30일(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동안 시민회관 광장에서 탈핵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원전이나 핵관련 시설이 전무한 제천 지역에서의 캠페인이었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를 위시한 노후 원전의 위험천만한 잦은 사고를 뉴스를 통해 접해 왔던 시민들이었기에 적극적인 서명 참여로 탈핵의 안전한 세상을 향한 외침에 동참하였다. 한편, 제천YWCA는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탈핵 관련 대(對)시민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며, 태양의 땅 충북에 사는 시민으로서 탈핵 평화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며 노력할 예정이다.



청주YWCA | 최지경 간사

기독교청년아카데미 개강

청주YWCA는 올해 하반기를 맞아 청년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5월 21일(목) 기독교청년아카데미 개강식이 있었다. 청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로 시대적 과제에 동참하는 사회적 영성강화를 위해 시작된 기독교청년아카데미는 총 11차시로 진행된다.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사명 발견하기, 기독교청년들과의 교제, 영적지식 향상, 일상에서 하나님나라 경험하기' 등 다양한 주제에 진지한 기대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1박 2일 워크숍이 열리는 8월 말까지의 아름다운 마무리, 그 이상을 기대해본다.

충주YWCA | 김애영 부장

어린이 환경체험단 '푸르미' 충주댐 종댐이길 걷기

6월 27일(토) 어린이환경체험단 '푸르미'가 충주댐을 따라 조성된 종댐이길 걷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충주댐과 맞닿은 산길을 걸으며 가뭄으로 더욱 심각해진 충주댐의 물부족 상황을 눈으로 보며 자연이 주는 소중한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

졌다. 2부로는 '내가 살고 싶은 지구'라는 주제를 그림으로 표현 후 발표함으로써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부

광주YWCA | 손유영 부장

**중견실무자 연수**  
6월 25일(목) 중견실무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중견 실무자가 바라보는 YWCA의 정체성과 목적(김신희 전 사무총장), 조직에 대한 이해와 실무지도자의 역할(윤정숙 국장), 실무지도자의 자세 및 Y중점운동의 이해와 YWCA 발전방안(서옥희 사무총장)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연수를 통해 중견실무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Y에 대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친교시간을 통해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남원YWCA | 박경은 간사

**양성평등 교육**  
6월 23일(화)과 6월 30일(화)에 뽀뽀한(Fun-fun) Girl, 당당한 Wome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같이연구소 대표인 김명료 강사를 초청해 각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긍정에너지 서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올해 6대 과제인 성 인지를 교육함으로써 여성들의 잠재적인 능력 개발과 리더십 교육을 통해 지도자를 양성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향하고자 한다.

목포YWCA |곽수현 부장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시장놀이**  
목포YWCA어린이집에서는 6월 12일(금) 어린이집 햇살반, 은빛반에서 YWCA다이스를 개장하여 원아 87명이 참여하는 시장놀이를 진행하였다. 원아들은 시장놀이를 참여하면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의 역할과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역할을 경험해 보고, 경제관념을 이해하며, 올바른 소비생활을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서귀포YWCA | 김수진 간사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6월 25일(목) 서귀포YWCA회관에서 평화아카데미 제2강좌로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국제분쟁 현장에서 찾는 평화'를 주제로 강단에 선 김 PD는 이날 국제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분쟁현장에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아픔을 취재하면서 느낀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김 PD는 "세대 간의 갈등, 소통의 부재 등이 분쟁이 씨앗이 되기도 한다"며 "우리 안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또한 평화를 지키는 우리의 실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순천YWCA | 신현아 간사

**전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6월 20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해피락 강당에서 '소통과 네트워크'를 주제로 본부, 여성인력개발센터,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적기업 해피락(주)의 전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족들이 살듯 순천YWCA 산하 각 기관에서 저마다의

특색을 가진 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전시간에는 강선임 회장의 격려말씀에 이어 '그 위대한 이름, 순천YWCA 70년'이라는 주제로 최영자 중경회장의 강의를 들었다.

전주YWCA | 김은진 부장

**'평화의 소녀상' 건립기금 모금**  
전주YWCA는 전북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에 참여단체로 함께하며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 모금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비용은 순수하게 시민과 단체의 기부로만 이뤄지며 한 명당 1만 원 이상씩 5천 명을 목표로 했으며, 참여자의 이름은 소녀상에 함께 기록된다. 전주YWCA에서는 125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 '평화나비'가 되었다.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까지 국내에 10곳, 미국 9곳, 일본 2곳에 세워져 있으며 전주 건립은 22번째가 될 예정이다.

제주YWCA | 이유리 간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6월 26일(금) 오후 7시 제주YWCA 4층 강의실에서 단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제주YW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을 열어 제주지역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단 활동의 첫 걸음을 시작하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감시단원들의 선서를 통해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건전한 청소년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제주YW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늦은 시간 청소년을 고용 및 출입할 수 없는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준수여부 모니터링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와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제주YWCA 문영희 회장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유해환경정화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YWCA | 이연주 팀장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상상학교'**  
천안YWCA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2015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상상학교' 사업

을 운영하며 천안용곡중학교 청소년들과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도비문화예술체험학교 강사님들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미술교육을 접하고 나무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자신만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즐겁게 길러가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상상학교 사업을 운영하는 충남 도내 6개 기관의 참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집중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동부

거제YWCA | 홍운정 팀장

**청소년 학습자원봉사단 창단**  
청아(푸른새싹)학습자원봉사단은 지난 5월 2일 창단해, 지도교사 1명(오용훈)과 거제고 3학년 4명(옥용모, 조상현, 윤희원, 박수로)의 학생이 옥포 성지원(사회복지법인) 초등학교 학생 4명과 1:1 맞춤형 학습지도 봉사를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학습봉사 외 음악이나 체육 등 놀이 활동을 통한 정서적 나눔으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참된 봉사가 여러 청소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길 바라며, 푸른 새싹처럼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든 봉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봉사단원들이 되길 바란다.

김해YWCA | 배정숙 부장

**노인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6월 30일(화) 경상남도 후원으로 제2회 자기사랑노트가 개최됐다.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자서전 쓰기를 통해 노년기에 줄어들기 쉬운 효능감과 자존감 향상을 위하고자 개최됐다. '자기사랑노트'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서전 쓰기와 더불어 미술심리상담과 소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YWCA | 이수빈 간사

**상반기 프로그램협의회**  
6월 19일(금) 6층 강당에서 상반기프로그램협의회를 진행했다. 개최예배로 시작한 협의회는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연계된 강사를 초빙하여 필수교육인 성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다. 오후에는 장윤재 목사(이화여대 기독교

교학과 교수)를 초청해 '정의와 평화'를 주제로 강의를 듣고 참석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겠노라 다짐했다. 앞으로 삶꾼이 아닌 일꾼이 되어 대구 지역을 살리기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Y운동에 힘을 쏟는 대구Y 실무자들이 되길 기대한다.

**마산YWCA** | **이애라** 부장

**대학Y 부산하나센터 방문**  
7월 1일(수) 마산YWCA 대학Y(터울거리)회원 8명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청년기행을 진행하였다. 이영 평화교육강사(평화교육센터)로부터 '통일에서 사람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분단의 불편함과 통일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부산YWCA 부속시설인 부산하나센터를 방문하여 부산의 새터민 현황에 관해 듣고, 새터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탈북하게 된 동기와 탈북과정, 현재 북한의 상황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YWCA** | **윤영인** 간사

**역사적 쾌거 고리1호기 폐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부산YWCA는 고리1호기 폐쇄에 동의하는 각 단체(121개)를 결속시켜 '고리1호기 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본부)를 결성했다. 부산YWCA 하선규 회장이 범시민본부 상임공동대표로, 김혜경 사무총장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부산YWCA는 사무국을 맡아 활약하면서 민관협력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의 긴밀한 조율, 언론을 통한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우공이산의 기적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이뤘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2017년 6월까지만 가동하게 되며 이는 국내 원전 역사상 첫 원전 폐로 결정이다.

**양산YWCA** | **박경하** 간사

**여성들의 이야기터 개최**  
6월 26일(금) '제8회 여성들의 이야기터'를 개최했다. '여성정책 제안을 위한 나의 주장 발표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양산 시민들이 참석할 가운데 양산YWCA 강당에서 진행됐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겪어 온 여성들의 삶의 현장과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또 다른 여성 정책을 제안하였다. 16명의 지역 여성들이 발언대에 올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펼쳐며 참석한 관객들에게 웃음과 눈물과 감동을 주었다.

**울산YWCA** | **최은지**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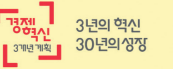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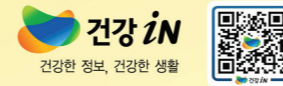
**어린이 미술대회 시상식**  
5월 30일(토) 울산YWCA 강당에서 어린이 미술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300명의 아동이 참석한 '대중교통 이용하여 환경 살리기', '미래의 대중교통', '내가 타고 싶은 대중교통' 중 주제를 선택하여 진행된 대회에서 20개의 작품이 수상하였다. 5개의 작품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15개의 작품이 수상을 하였다. 어린이 미술대회 시상식은 밝은 분위기로 시작되어 가족 모두 기쁨을 만끽했다. 수상한 20개의 작품은 미술대회 참가자 모두가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되었으며, 전시회는 6월 9일(화)부터 6월 11일(목)까지 3일 동안 열렸다.

**진주YWCA** | **김소연** 간사

**제37주년 창립예배**  
6월 23일(화) 제37주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사, 실무자, 어린이집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진주 Y 케이크 커팅식과 역사와 수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증경 회장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준비한 공연을 무대에서 마음껏 펼쳐 생일을 축하했다. 단합 게임을 통하여 열심히 응원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 서로 하나되는 마음을 느끼고 앞으로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기쁜 날이었다.

**포항YWCA** | **송근선** 간사

**찾아가는 청소년 소비자 교육**  
6월 24일(수) 관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계약의 피해 유형을 알아보고 피해 발생시 구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휴대폰으로 구매시 주의해야 할 소비자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 유익한 교육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하는  
**국가건강검진**을 꼭 받아요!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
- 만 40세(75년생) 이상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
- 만 19세 ~ 만 39세 의료급여세대주
- 만 40세 ~ 만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 검진주기 :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만 40세(75년생)와 만 66세(49년생)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

**영유아 건강검진**

- 생후 4개월 ~ 71개월 까지의 모든 영유아

**암검진**

- 위 암[만 40세(75년생) 이상, 2년 주기]
- 간 암[만 40세(75년생) 이상 고위험군, 1년 주기]
- 대장암[만 50세(65년생) 이상, 1년 주기]
- 유방암[만 40세(75년생) 이상 여성, 2년 주기]
- 자궁경부암[만 30세(85년생) 이상 여성, 의료급여수급자는 만 20세(95년생) 이상 여성, 2년 주기]
- ※ 검진주기가 2년인 경우 출생 연도(짝·홀수)에 따라 실시

**구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 문진과 진찰(구강건강관련질환 등 상담),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치면세균막검사(만 40세만)

**「민원24」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생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24」 : www.minwon.go.kr

**국가건강검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발급·갱신신체검사(시력, 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 의료비 지원 혜택**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단, 1차 검진필수, 암검진방법 절차준수)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만 18세 이상 암환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뇌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은 42%, 질환 발생률은 18% 낮으며 의료비도 적게 사용’  
(서울대병원연구팀, 국제학술지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에 2015.1월 발표)

